

기금 확충 발 벗고 나서야

2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 출범 지원금 공정·투명한 운영을 '문화 수도' 연구 중심 단체로

29일 출범한 제2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는 문화예술진흥기금(국비포함) 지원 사업과 함께 광주 지역 문화 발전과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예술 발전을 위해 47억원에 머물고 있는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의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제 1기 문진위의 주요 사업인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 심사와 분배에 그쳤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문진위는 지난 2년 6개월간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 심사(2007년 4억 4천만원)와 국비수탁사업(21억원)을 진행하는 데 사업의 주안점을 뒀으며 심사를 둘러싼 잡음이 일기도 했다. 반면 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정책개발소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정책 제안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문진위의 향후 위상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의견이 '심사의 공정성·



제2기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투명성'과 시의 철저한 감독·감사를 전제로 현재 시가 운영중인 무대예술지원작품, 사회단체 보조금 등 각종 예술관련 지원금의 운영도 함께 맡아 명실상부 예술단체 지원의 중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기 위원회가 예총·민예총 추천 위원들의 알력으로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은 점을 거울 삼아 위원들 역시 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의견 조율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진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기금 확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문진기금은 47억 700만원선으로 경기문화재단의 1천100억원, 인천문화재단의 450억원에 한참 뒤쳐진 규모다. 전문가들은 시도 출연금을 늘리고, 신임위원장과 위원 역시 기금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역예술계 인사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기금문예진흥기금을 분배하는 것은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이제는 광주의 화두인 문화수도 등 지역 문화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용인의 축제 '광주무용제'

오늘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광주현대무용단 등 3팀 경연

광주지역 무용수들의 축제인 제16회 광주무용제가 30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무용협회 광주시지회(회장 정해경)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광주현대무용단, 조소희현대무용단, 김미숙하나무용단 등 3팀이 열띤 경연을 펼친다. 최우수상팀에게는 오는 9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광주현대무용단(안무 박종임)은 허영과 환상으로 위장된 사회에서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작품 '시신을 돌리다...'를 백난희·김미선·김민성씨 등 29명의 단원



김미숙하나무용단의 '희소곡'

들을 통해 무대에 올린다.

또 조소희현대무용단(안무 조소희)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여성들의 자유와 열정을 그린 '처녀들의 수정'을 공연하며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을 멋스러운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희소곡'

을 무대에 올린다. 한편 2006년 전국무용제에서는 '박금자발레단'이 참가, 금상과 안무상의 자유와 열정을 그린 '처녀들의 수정'을 공연하며 김미숙하나무용단은 조상의 공덕을 기리는 내용을 멋스러운 한국적 춤사위로 풀어낸 '희소곡'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태어난 날 세상 '인연' 끊은 피천득 선생

5월 29일 서울아산병원서 장례식... 남양주시 모란공원 안장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산한 얼굴이다. (종락)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오월 속에 있다."('오월' 중)

5월을 좋아했던 '인연'의 수필가 피천득 선생이 결국 자신의 생일인 5월29일 세상과의 인연을 접었다. 지난 25일 향년 97세를 일기로 타계한 고인의 영결미사가 29일

오전 7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및 소설가 조정래씨,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이해인 수녀 등을 비롯해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영결식에서 조정래씨는 대표 조사를 통해 "많은 문화인들이 때묻고 추하게 변하는 현실에서 선생님은 항상 맑고 깨끗했다"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은유하게 대

하면서 스스로에게는 칼날의 예리함으로 대했던 선비 같은 분"이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우창 교수는 "선생님은 맑은 것이 가려지기 쉬운 세상에서 맑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셨다"며 "순수하고 참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삶이었다"고 회고했다.

장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이다. /연합뉴스

오건택 위원장 "문화수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 힘쓸 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광주 문화수도를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9일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건택(61·전 광주시립미술관장)씨는 "1기 위원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찬찬히 되짚어 가며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후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위원장은 또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문예진흥기금 분배와 관련, 충분한 사전 정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지원자의

"문진위의 예산이나 기금이 너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직접 발로 뛰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오위원장은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특히 문화수도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생명의 순환...도도한 물줄기

송필용씨 '상선약수'展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이화익갤러리

도도한 물줄기를 꾸준히 화폭에 담은 송필용씨가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이화익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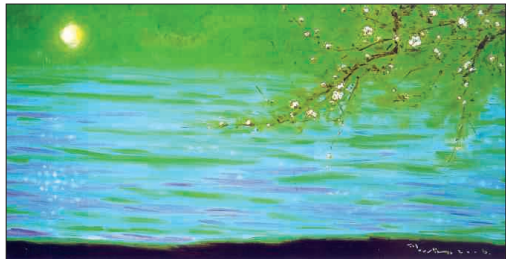
송씨는 '상선약수(上善若水·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를 주제로 한 전시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물의 덕성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의 물사랑은 유별나다. 물을 좇아 20여년 전 담양 소쇄원 인근으로 화실을 옮긴 뒤 '흐르는 물처럼'

업', '요산약수(樂山藥水) 등 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리산의 크고 작은 폭포를 비롯해 백두산의 백두폭포, 금강산 외줄폭포와 섬진강 매화 등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된다.

'흐르는 물처럼-생명의 순환'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보라와 물거품을 격정적으로 표현, 생명의 근원을 향한 작가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다.



흐르는 물처럼-섬진 매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거쳐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졸업한 뒤 마니파 서울국제아트페어, 한국베트남 화가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730-7814.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선창배 클라리넷 독주회

31일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선창배(사진) 클라리넷 독주회가 3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고스 실내악단(지휘 이창훈)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 선 씨는 모차르트가 남긴 최후의 작품이자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인 '모차르트를 라리넷 협주곡'과 밝고 경쾌한 선율이 인상적인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 2번'을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양대 음대와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선씨는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광주교대 등에 출강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수완지구 조각작품

당선작 없이 2·3등 선정

작품 공모를 놓고 잡음이 일었던 광주 수완지구 조각작품 공모는 결국 당선작을 배출하지 못했다.

29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토공)는 야외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작품 제안서를 심사했으나 당선작이 없어 2·3등 작품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토공측은 "당선작을 뽑지 못했지만 작품선정을 위한 재공모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로템갤러리 Gallery RODEM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가구의 **가격**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직수입 엔틱 전문매장 · 현대 · 식탁 · 소파 · 소품 · 가구 · 커튼

각종 고급 침대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소파, 식탁, 침대, 소품

찾아오시는 길: 1기택방주 - 배문동 - 삼성디지털프라자 - 현대자동차 - 미래에셋증권 - RODEM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국비무료모집

과정	교육내용
기업사무자동화인력양성	윈도우XP, 워드, 엑셀, 컴퓨터활용능력 등
영세자영업자 교육(07/6/1~3개월)	다양한 기능 습득(시간: 9:10-13:00)

*영세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체 보험실제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등)로 전액 국비교육, 교재무료제공, 수당지급.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재직자과정(교육기간)	교육내용(교육시간)
주택관리사 (월-토)	교육기간: 6/4-7/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공인중개사 (월-토)	교육기간: 7/2-8/31 (월-금: 19:00-22:30, 토:15:00-18:30)
주택관리사 주말반(토,일)	교육기간: 7/7-8/26 (토14:00-20:00, 일10:00-17:00)

개강 6/4 사무자동화 (월-금)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사무자동화실기 대비

기타 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의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훈련수강신청서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저지직강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강의 DVD 녹화대여로 반복학습

버스노선: 전남대학교·봉선37, 지원52, 지원54, 금남58, 두암81, 518, 예술의거리입구·풍암07, 금남56, 대촌70, 대촌170, 문화전당역(구 도청)·진월07, 침단09, 지원45, 지원51, 지원52, 지원53, 금남55, 금남56, 금남57, 금남58, 금남59, 풍암61, 문흥80, 두암82, 518, 1187

☎ 노동부직접능력개발훈련시설 ☎

현대직업전문학교

☎ 224-4560, 224-4580, 232-1088

위치: 동부경찰서 옆 http://www.hdedu.co.kr

= 전남 행정직 7급 21명 9급 154명, 시험 10월 13일 시행 =

7.9 공무원 대

속보 = 전남 9급 교육행정직 을 하반기 시행 =

◎채용인원: 000명(약 50명) 이상 필름, 합격에 절호의 기회◎

※ 05년 12월 11일 165명 공채, 1875명출원, 응시률 9:1 경쟁이었다 ※

· 서울 7월 8일 · 전남 6월 23일 · 전북 9월 8일 시행 =

6월 1일 주·야(출발)반 모집

(현재 상담 접수중)

= 46년 전통의 "無等"은 "꼭" 합격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

www.mdgosi.co.kr ☎ 222-4560

Speed 인생역전! 대학편입, 의치, 한의학전문대학원

합격생 70% 김영출신

· 의치,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6월 1일

· 약대/한의대/수의대 편입대비반

· 08년 편입시험 대비반 (일반편입/학사편입)

★ 수준별 맞춤이론 강좌: 기초-이론-적용-핵심-심화

개설과목: 영어, 언어추론,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그 동안 김영출신 11만 5천여명 합격

www.kjyoung.com

김영(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옆 ☎ 227-8088